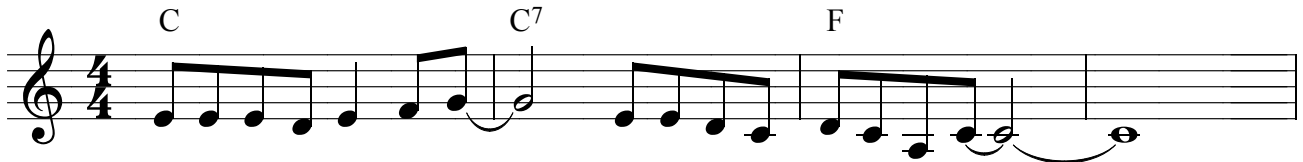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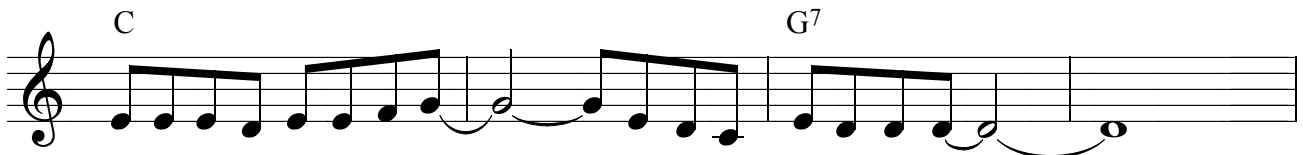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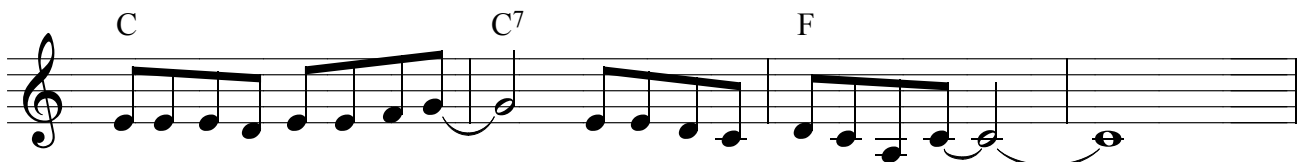
전영호 작사  
김석균 작곡



왜 이렇게 된 걸까 - 어찌하다 여기까지 -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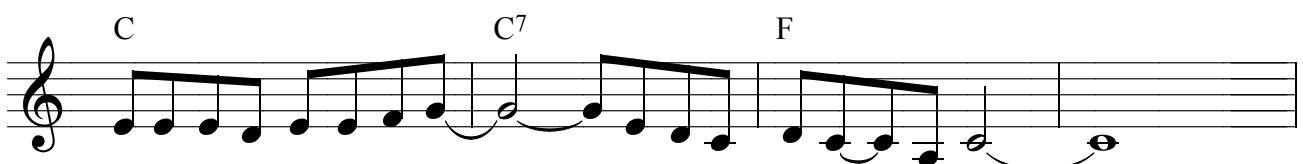
내 눈앞엔 어둠만이 - - 한 숨을 몰고 오네 -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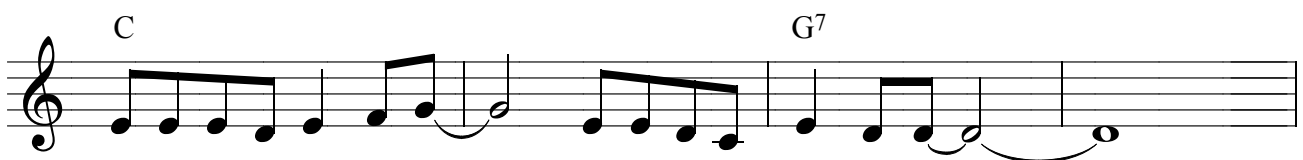
그림자처럼 따르던 - 사람들도 흔적 없네 - -  
두 손으로 쥐고 있던 - 모든 것도 흔적 없네 -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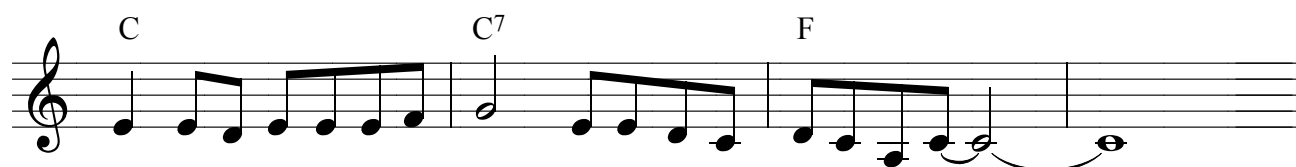
내 입술엔 분 - 노와 - 원망 만남 아 있네 - -  
내 눈가엔 두려움과 - 원망 만남 아 있네 -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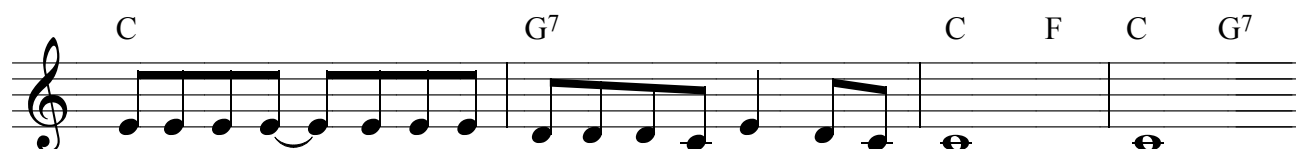
살다 보면 이런 날이 - - 때때로 찾아 오지만 - -  
이런 날이 올 무되어 - - 힘들게 만들 - 어도 -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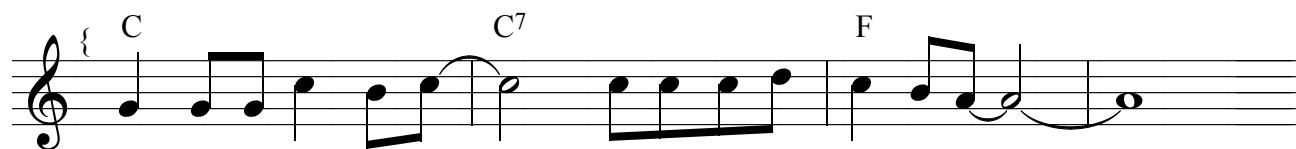
절망하지 마세요 - 돌아서지 마세요 - -



당 신이 어 둠 속 에 서 길 을 잃 고 헤 매 일 때 -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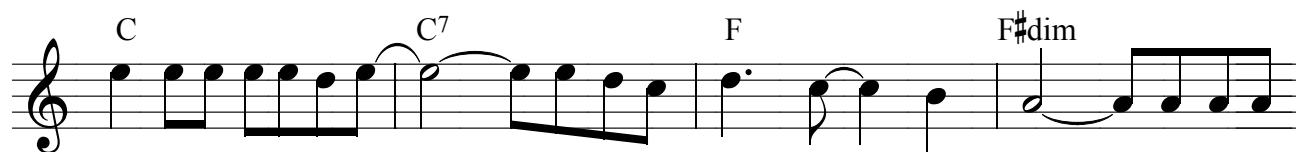
주 님 께 선 - 새 벽 을 준 비 하 고 계 시 죠 - -



어 둠 의 커 텐 을 - 걸 어 내 는 새 벽 을 - -



새 벽 을 기 다 리 며 어 둠 을 지 나 세 요 - -



새 벽 을 기 다 리 며 - - 어 둠 을 이 기 - 세 요 - 새 벽 을



만 드 시 는 - 주 님 을 찬 양 하 세 요 -